

[종합]

타임誌 선정 '올해의 인물' '당신(You)' 선정

〈일반시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6년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을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타임은 유튜브 같은 영상과 일 공유사이트, 마이페이스 등 개인 블로그를 예로 들며 디지털 민주화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의 틀을 만들고 전세계 미디어 영역을 장악한 점이 '당신'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앨범 사이트 플리커나 네트즌들이 편집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도 미디어 전문가가 대신 보통 사람들이 보여준 인터넷 혁명의 사례였다고 타임은 덧붙였다. 타임의 평론가인 레브 그로스

만은 "전세계 언론의 통제권을 누르고 새로운 디지털 민주주의의 기초와 틀을 세운 것은 물론 자신들의 놀이에 관한 부분에서 만든 전문가들을 압도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한 당신이야말로 '올해의 인물'이라고 밝혔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뉴스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선정하는 타임의 2006년 '올해의 인물' 후보로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이라크연구그룹(IGS)을 주도한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이 거론돼 왔다. /연합뉴스

광주 이전기업 최고 50억 지원

市, 수도권 대상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콜센터 등 서비스업도 시설비 지원키로

광주시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최고 5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투자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17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국비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 한도액을 기존 12억원에서 최고 50억원

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와 지원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투자촉진조례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시는 또 콜센터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30% 범위내에서 기

업당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시는 외국인전문학교 등 외국인 생활개선을 위한 시설물에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금액 15억원·신규채용 15명 이상'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의 종류는 광산업, 부품소재산업, 산업디자인산업, 문화산업, 나노기술산업, 항공우주산업, 가전로봇산업, 차세대전자금융산업, 생명정보기술산업, 첨단노화의료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시는 특히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및 공장

시설비를 10% 이내에서 도로·용수 시설·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는 한편, 부족한 산업유치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 이후 광주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36곳이며 투자금액은 460억원에 달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연말 관가 고강도 감찰

감사원은 공직사회 감찰정보팀과 현장 감사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와 비리 감사에 나서는 등 참여정부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공직사회 직무감찰 기능과 지자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말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7일 "이번 직제개편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임기말 상황에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관련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의사 시장 개방 추진

한의사 시장 개방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FTA 협상에서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한의계는 일대 지각변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에서 한의사들이 대거 유입되면 국내 11개 한의과대학 출신들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되면서 경쟁 격화가 불가피해진다. /연합뉴스

명단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광주 40명·전남 30명

전국적으로 1,149명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8일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개인·법인)가 전국적으로 1천149명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도의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각각 40명과 30명이다. 이중 광주의 체납액 최고는 법인의 경우 12건으로 8억원이며, 3억원 이하가 14명, 3억~5억원 3명, 5억~10억원 1명 등이다. 개인은 모 기업 대표인 K씨가 11억원으로 가장 많고 3억 원 이하 19명, 3억~5억원 1명, 5억~10억원 1명, 10억원 이상 1명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가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6개월간의 납부촉진 및 소명기회를 준 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징보공개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공개대상자 1천149명 중 법인체납자가 529명, 개인체납자가 620명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천602억원에 이른다. 체납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158명), 경북(104명), 대구(47명), 충남(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스너피' 여자친구 암캐 3마리 복제 성공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이 세계 첫 복제 개 '스너피' (수컷)의 여자 친구격인 복제 암캐 3마리를 더 탄생시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그동안 복제 개가 탄생했다는 보도는 일부 있었지만 국제학술지를 통해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국제학술지인 수의산과학지(Theriogenology) 인터넷판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김대용 교수팀(제1저자 장구 연구원)은 수컷인 스너피를 복제한 데 이어 암캐인 '보나(Bona)'를 스너피와 같은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지난 6월18일 출산에 성공했다. 보나는 라틴어로 최고품, 선물, 축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나는 태어날 당시 체중이 520g이었지만 지금은 20kg으로 성장했다. 또 7월 10일과 15일에는 각각 피스(Peace)와 호프(Hope)로 이름지은 암캐가 추가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체중은 피스가 460g, 호프가 520g이었다. 세 마리 복제개 모두 재왕질개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이 세계 첫 복제 개 '스너피'(수컷)의 여자 친구격인 복제 암캐 3마리를 더 탄생시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복제 암캐 보나, 피스, 호프.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아직까지 '눈사람 정책'이란다

재건축·재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올해 개인과산 신청 10만명 넘어서

재개발사업 위축될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률 감소에 따라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민간아파트의 범위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당정은 지난 15일 협의 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채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이 당측의 의지가 강하게 관철된 결과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빛 값을 능력이 없어 개인과산을 선택한 채무불이행자가 올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열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과산 신청은 모두 9만6천200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3만8천800건)의 2.5배에 달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신청건수가 매달 1만건을 넘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1월에 이미 10만명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개인과산 신청은 지난 2000년 32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건, 2003년 3천856건, 2004년 1만2천300건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2006-343호

분묘개장공고(2차)

완도군이 시행하는 군·남해군 국도18호선 확보장공사에 편입되는 지정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선처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 가장대상 분묘소재지 및 가수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산2-48(1기)

분묘소재지	지번	지목	수원	비고
군외면 원동리	산2-48	묘	1	분할된 지번 산2-14

- 개장사유: 군·남해군 국도18호선 확보장공사 구간내 편입
- 개장공고기간(1차): 2006년 11월 16일~2007년 1월 15일
- 개장방법
- 가. 유언분묘: 신고후 연고자가 직접 개장(이항하지 않음)
-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 개장장소
- 가. 유언분묘: 연고자가 직접 개장
-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후 완도군 공설묘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상두리 산 87번지)로 개장
- 신고 및 문의처: 완도군청 건설과(061-550-5481)
- 구비서류: 연고자명 등명부(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사본 등)

2006년 12월 18일
완도군수

급매

서석고 정문앞 창원빌라
81평 매매 2억(분양가 3억6천)

연락처 011-609-1245

전원주택지분양 (150평~250평)

- 화순읍 근교(5분거리)
- 허가필(건축가능)
- 남향 전망좋은
- 가격 전화로 결정

☎ 061)375-8821, 011-629-6051

2007 국가직/지방직 대비 개강 1월 2일

7급 공무원 특강

9급 공무원 특강

현 노량진 올스타 교수진 실강 강의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 환불

개강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소방직, 교정직

- 특별이벤트: 1. 기본교재 3권(10만원 상당) 무료 증정
- 2. 정독실(365일 24시간 개강) 30% 할인

공인 무료 2007년 10월 중개사 무료 교육 시험 대비

- 재직자(고용보험 가입자) 무료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전국 공인중개사 스타 교수진(EBS방송강사)총 출강(저지직강)

개강 1월 2일 첫집도 (주간반, 야간반)

※ 2개월 이상 수강 신청시 최신스타다운 증정(SK텔레콤 단말기)

● 매가등급 자신감 ●

광주 메가고시학원

http://www.gmega.co.kr

● 연립선생기술학원: 강남공인중개사학원 ● 위치: 전남여고 후문 ● 상담전화: (062)226-5050, 225-8181

유웨이에듀 uwayedu

공부의기술 유웨이에듀

전국투어, 그 두번째! 이제 광주다!

유웨이에듀 예비고3을 위한 2008 입시설명회(12월 20일)

- 일시 및 장소: 광주 강타! 12월 20일(수) 14:00~ [조선대학교 서석홀]
- 행사내용
- 1부: 2007입시분석 및 2008 입시전망 - 이만기 평가이사, 백승한 평가실장
- 2부: 2008학년도 각 영역별 학습전략 - [언어] 김호근, 이선 [외국어] 이태원, 이인성, 조오제 [수리] 남언우, 소순영, 예지 [사탐] 서정민, 김성목, 김정현, 박대훈 [과탐] 한용수, 허지영, 고석용
- 3부: 2008학년도 논·구술 대비전략 - ZEN팀, 김득연, 통합논술팀, T&M

■ 참여대상: 예비고 2,3 및 예비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 설명회의 자세한 내용 및 약도는 www.uwayedu.com에서 확인하세요

www.uwayedu.com
문의전화: 1588-8988